

미국의 강도성을 보여준 1871년 대규모적무력침공

정진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입니다.》(《김일성전집》 제14권 6페이지)

미제의 1871년 대규모적무력침공사건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강도적인 호전성을 날날이 보여준 사건이였다.

미제는 이미 1866년에 《포함전술》의 수법으로 조선에 대한 예측적불평등조약을 강요하고 《개방》을 실현할 목적으로 침략선 《서면》호를 대동강에 침입시켰다가 우리 인민의 견결한 반침략항전에 부딪쳐 수장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1868년에는 비렬하게도 남연군묘를 도굴하다가 인민들의 반격을 받고 쫓겨났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반미기세는 더욱 앙양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침략의 참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1871년에는 아시아에서 저들이 굽어모을수 있는 무력을 총동원하여 또다시 조선에 기여들었다.

1869년 미행정부에 기여든 대통령 그란트, 국무장관 피쉬, 해군제독 로저스 등은 《1866년 미국상선 <제네럴 서면>호의 선원들이 불법적으로 살해되였다.》라고 하면서 《힘에 의한 조선의 개방》, 《<서면>호사건과 관련한 징벌원정》을 하겠다고 췌쳤다.

미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목적은 겉으로는 《서면》호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였으나 기본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강제개방시키고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여 침략의 길을 열자는것이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원정준비를 발광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미행정부는 청국주재 미국공사 로우에게 우리 나라 침략전권을 부여한 다음 그에게 대통령교서를 하달하였다.

대통령교서에서는 《조선해안에서 미국의 조난선원에 대한 조선인의 야만적인 대우(<서면>호사건을 의미함)를 근절하기 위하여 본인은 베이징주재 미국공사 로우에게 앞으로 이러한 조난선원의 안전과 인도적대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과 협정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바이다. 필요한 경우 로우공사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로저스제독으로 하여금 충분한 병력》을 동원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란트의 대통령교서는 《서면》호사건을 구실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선언과 같았다.

국무장관 피쉬는 그란트의 전쟁폭언이 있는 후 1870년 4월 4일에 해군장관 로버트슨에게 《...쌍방간에 전쟁이 발생할 때에는 해군성이 즉시 로저스제독에게 로우공사와 협의하도록 지시할것》이라고 뇌까렸다.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은 로버트슨은 4월 16일에 정식으로 로저스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였다.

미행정부의 훈령을 받은 로우는 1870년 11월에 베이징에서 3자회담(로우, 상해주재

총령사 조지 시워드, 로저스)을 벌려놓고 조선침략을 위한 전쟁모의를 하였다.

3차회담에서 모의된 내용은 1870년 11월 22일 미국무장관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내용의 요지에는 조선징벌원정군은 상해 또는 지부에서 출항하며 출정시기는 1871년 5월 1일부터 15일사이가 될것이다, 본인(로우)은 시워드총령사가 조선징벌원정에 동행하게 되면 그의 경험을 최대한 리용할것이다, 본인은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조선정부와의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과 서명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것을 요청한다는것과 함께 조선침략에 참가할 인원문제와 침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되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미해군의 아시아함대를 조선으로 출동시킬것을 결정하고 그 무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1869년 상반기기간에 미국에 있던 4척의 군함들인 《콜로라도》호, 《앨래스커》호, 《베니시아》호, 《팔로스》호가 각각 미국의 항구들을 떠나 일본의 나가사키에 집결되어 《모노카시》호와 함께 로저스제독휘하의 아시아함대에 배속되었다. 아시아함대는 군함 5척, 대포 78문, 병력 1 400여명으로 편성되었으며 로저스의 지휘밑에 나가사키에서 약 15일동안 조선침략을 가상한 종합상륙작전, 해상기동연습을 진행하였다.

조선침략에 앞서 로저스는 조선원정에 나선 아시아함대의 기본임무는 조선측으로부터 《서면》호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를 받은 후에 《통상조약》을 체결하는것이라고 력설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선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까지 췌쳤다.

침략준비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미국은 1871년 5월 16일 아침 출동명령을 내리고 나가사키를 출발하였다.

선두에서는 대포 44문을 적재하고 650여명의 병력을 태운 《콜로라도》호가 섰으며 이 배에서 청국주재 미국공사 로우와 해군제독 로저스가 타고 조선침략함대를 지휘하였다.

기함의 우측에는 《앨래스커》호와 《베니시아》호가, 좌측에는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가 각각 곡사포를 적재하고 뒤따랐다.

이것은 미국이 1854년에 일본을 강제로 개방할 때 동원하였던 무력에 비하여 대비할 수 없는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무력집단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처럼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다면 조선《개방》과 《통상조약》강요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나가사키를 떠난지 3일만인 5월 19일에 충청도 해안에 침입한 놈들은 아산만으로부터 인천만까지의 항로를 조사한 다음 한성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에도 유리하고 담판을 진행하는데도 유리한 장소를 작약도와 룰도사이로 정하고 29일에 이곳에 함대를 정박시켰다. 그리고 조선봉건정부의 문정관에게 《미국함선은 모두 5척이며 조선에 통상하러온 것이지 결코 조선인민을 살해하기 위하여 온것이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떠벌이면서 조선정부가 미국특사와 대등한 관리를 파견하라는것, 강화해협에 대한 수심측량을 방해하지 말라는 등 강도적요구를 들이대었다.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으로 또다시 나라에 엄중한 위기가 닥쳐오자 우리 인민들은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적들을 반대하는 반침략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1871년 6월 1일 미국함선이 한성으로 가는 길목인 강화해협의 손돌목으로 침입하였을 때 광성진, 덕진, 덕호진을 지키고있던 조선군인들은 기여드는 침략자들에게 집중포화

를 퍼부어 《모노카시》호에 결정적타격을 가하였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 의하여 할수 없이 퇴각하게 된 적들은 오히려 조선봉건정부가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으면 강화도상륙작전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7일간에 걸쳐 대규모의 공격준비를 다그쳤다.

로저스는 강화도침략무력의 총지휘관으로 《알래스카》호 함장 해군중좌 블레이크를, 10개 보병중대로 편성된 상륙부대의 지휘관으로 《베니시아》호 함장 해군중좌 킴벌리를, 대포와 곡사포로 무장한 7개 포병대의 지휘관으로 해군소좌 캣셀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해상에서 엄호사격과 병력수송을 담당할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에는 기함 《콜로라도》호의 대포 2문을 추가 배치하고 강화해협으로 출동준비를 완료하게 하였다. 침략준비를 끝낸 아시아함대 제독 로저스는 6월 9일 《알래스카》호의 함장 블레이크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강화해협의 해안포대에 대한 공격을 귀하에게 위임한다. ...이번의 원정목적은 ...조선포대를 점거, 파괴하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있는것만큼 지금부터 약 22시간 후 조선포대를 공격점거한 다음날 밀물때에 전체 군대를 철수하기로 하였다. 만약 귀하가 점령한 진지를 무기한 점령해야 하고 또 그렇게 점거함으로써 어떤 물질적리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본관에게 통지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이 나라에 원정한 유일한 목적은 바로 미국정부가 본인에게 훈령한바와 같이 조선과 조약을 맺기 위한것이다...》

청국주재 미국공사 로우도 이와 류사한 내용의 지시문을 공사관 서기관 드루에게 하달하였으나 침략자들의 기도는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6월 10일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의 엄호를 받으며 450명의 미제침략군이 초지진포대를 파괴하고 상륙하였지만 애국의 일념으로 불타는 우리 군인들은 100여명의 침략자들을 살상하였다.

그러자 침략자들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현대적전투방식으로 적을 공격할것이며 우리가 리용할수 있는 모든것 즉 탄환, 포탄, 검을 총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할것이다.》라고 고아대면서 대병력을 들이밀었다.

다음날 덕진을 강점한 원수들은 강화도의 중요한 요새지인 광성진으로 달려들었으나 이곳을 지키고있던 우리 군인들은 근 10배나 우세한 적들의 돌격을 물리치면서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광성진전투에서 넋을 잃은 양키들은 《남북전쟁에 있어서도 이처럼 작은 장소와 짧은 시간에 이처럼 치렬한 포화력과 탄우, 초연이 집중된적은 없었다.》, 《그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맞받아싸우면서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은 창과 칼로 미군을 상대하는데 그나마도 없어서 빈주먹인 병사들은 맨손으로 흙을 쥐여 뿌렸다. 그들은 모든것을 각오하고 한걸음한걸음 포위하여 다가드는 적군에게 죽기로 싸웠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우리 인민의 완강한 반침략투쟁에 의하여 된매를 맞은 침략자들은 조선원정의 패배를 인정하고 쫓겨가지 않을수 없었다.

놈들이 쫓겨간 후 조선봉건정부는 한성 종로거리와 전국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비에는 《서양오랑캐들이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자는 나라를 파는것이다. 병인년(1866년)에 이 글을 지었고 신미년(1871년)에 비에 새겨 전국

에 세운다. 우리의 천만년 자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노라.》라고 새겨져있다.

력사에 《신미양요》라고 알려진 미국의 대규모적무력침공은 미제야말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철천지원썩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도 미제의 강도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악랄하게 우리 공화국을 제재압살하기 위한 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우리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것이다.